

# 한국인에 의한 영어 관계절의 습득: 외국어 습득에 UG가 작용하는 하나의 증거

조수근

(광운대학교)

Cho, Sookeun. 2002. **The Acquisition of English Relative Clauses by Korean Adults: Evidence for Universal Gramma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157-170.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tructural Distance Principle which operates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English relative clauses is available to the second language learners of English relative clauses. The experiment that we conducted involves a comprehension task, where a picture selection procedure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ve difficulty of subject, object, and dative relative clauses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he subjects for the experiment consist of 22 Korean adults. The finding is that subject relative clauses are easier to comprehend than object or dative relative clauses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which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ubject gaps are easier to link to their head than object and dative gap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Distance Principle suggested by O'Grady(1997). This result complies with the finding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that subject relative clauses are easier to understand than object relative clauses in English, which the Structural Distance Principle is also responsible for. This suggests that the acquisition device operating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is also operativ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주제어 (Key words):** 관계절(relative clauses), 관계절 습득(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외국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 1. 서론

관계절이란 명사의 지시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하나의 내포문으로, 관계절은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보통 '머리어(head)'라 불린다)와 일치하는 공백으로 나타내어지는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1) 영어

the book [which Mary bought \_\_\_\_ yesterday]

## (2) 한국어

[영희가 어제 \_\_\_\_ 산] 책

위에 있는 영어의 예 (1)에서 괄호로 표시된 관계절은 명사 *book*의 가능한 여러 지시물을 *Mary*가 산 특정한 책으로 제한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관계절 안의 동사 *bought*의 목적어 위치에 있는 공백('\_\_\_\_'으로 표시된)은 명사 *book*과 일치한다. (1)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의 관계절은 한국어의 관계절과 약간 다른데 한국어에서는 관계절과 머리어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없으나 영어에서는 *who*, *which*, *whose*, *whom* 이나 *that*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어에서는 관계절이 자신이 수식하는 머리어의 왼쪽에 위치하나 영어에서는 자신이 수식하는 머리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영어에서 관계절 구문은 아동의 영어 발달 과정에서 비교적 늦게 습득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 1973; Limber, 1973; Menyuk, 1977; Miller, 1981). 약 3세 정도에서 아동들은 관계절 구문이 포함된 문장을 일부 이해하고 발화도 하지만 실제 학교에 가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관계절 구문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의 관계대명사에 대한 모국어습득이론(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외국어습득이론(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3)과 같은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이 (4)와 같은 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에 비해 더 쉽게 이해되고 발화된다고 한다(Gass, 1979, 1980, 1982; Eckman et al., 1988; Doughty, 1991; Wolfe-Quintero, 1992; O'Grady, 1997).

(3) the truck [that \_\_\_\_ pushed the car]

(4) the truck [that the car pushed \_\_\_\_]

O'Grady(1997)는 주어 공백이 포함된 관계절이 목적어 공백을 포함한 관계절 보다 더 쉽게 습득되는 이유를 (5)의 '구조적 거리 원리(the Structural Distance Principle)'로 설명하고 있다.

(5) 구조적 거리 원리

최대투사범주의 수로 표시된 공백과 머리어 사이의 구조적인 거리가 문장의 복잡성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관계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은 관계절 안의 공백을 머리어의 지시물로 이해하고 또 관계절 안에서 올바른 문법적인 역할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인데 이 구조적 거리 원리에 따르면 주어 공백은 목적어 공백에 비해 머리어와의 거리가 문장의 구조상 더 짧기 때문에 목적어 공백에 비해 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거리는 문장 내에서 공백의 내포된 정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데, 공백이 내포된 정도는 공백과 머리어 사이의 최대투사 범주의 수를 헤아리면 된다. (6)에서 볼 수 있듯, 주어 공백의 내포 정도는 1(즉, S)이며 직접목적어 공백의 내포 정도는 2(즉, S와 VP)이다. 따라서 (3)에서의 주어 공백이 (4)에서의 목적어 공백에 비해 머리어와의 구조적거리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 (6) a. The truck [S that \_\_\_\_ pushed the car]  
 b. The truck [S that the car [VP pushed \_\_\_\_ ]

구조적 거리 원리는 관계절에서의 주어 공백의 습득상의 선호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7)의 ‘easy to see’구문이나 의문사 의문문 구조 그리고 분열문 구조 등에서 보이는 주어 공백의 선호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거리원리는 언어습득장치의 하나로 여겨진다(O’Grady, 1997, p. 356).

(7) a. ‘easy to see’ 구문

The duck is easy [ . to bite \_\_\_\_].

- b. 의문사 의문문 구조

Who \_\_\_\_ is helping the boy?

What is the boy helping \_\_\_\_?

- c. 분열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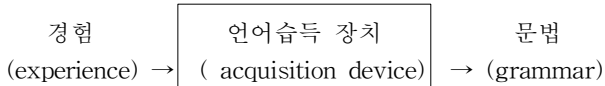
It’s the cow [that \_\_\_\_ bumps the horse].

It was the truck [that the wagon bumps \_\_\_\_].

현대언어학에서 언어 습득은 아래 그림1의 모델에 따라 일어난다. 즉, 아

동들은 부모가 말하는 문장을 듣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언어습득장치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어른들의 문법(한 언어에서 의미나 하위 범주 등을 포함하는 단어에 대한 기본 정보, 음운 구조, 문장 구조, 의미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그림 1. 언어 습득 과정



흔히 UG(Universal Grammar)라 불리는 언어습득장치(acquisition device)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그 효과는 문장의 발달 과정에서 많이 관찰된다. 외국어습득이론에서의 한 주장에 따르면 언어습득장치는 일생을 통해 변함이 없다고 한다(Thomas, 1991; White, Travis & Maclachlan, 1992; Flynn, 1996; Crain & Thornton, 1998). 다시 말하면 모국어습득에 작용한 언어습득장치가 외국어습득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한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언어습득장치의 효과는 모국어의 습득에서만 아니라 외국어의 습득에서도 똑같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국어로서의 영어 관계절 습득에서 작용한 구조적 거리 원리가 한국인 성인에 의한 외국어로서의 영어 관계절 습득에서도 작용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에 똑같은 언어습득장치가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실험

이 연구에서의 실험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는 19세에서 22세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2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영어의 관계절을 듣고 그 관계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이해도측정 실험방법(comprehension task)을 택하였다.<sup>1)</sup>

1) 대학졸업자나 정규대학교의 재학생은 영어 관계절에 대한 습득이 완료되어 그 발달 과정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 고교졸업수준의 영어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피실험자로 택하였다. 이들은 현재 대학교 부설기관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과정에 재학 중이며 교양과목으로 영어회화를 듣고 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의 인터뷰에서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영어실력이 하위일거라고 말했다.

## 2.1. 실험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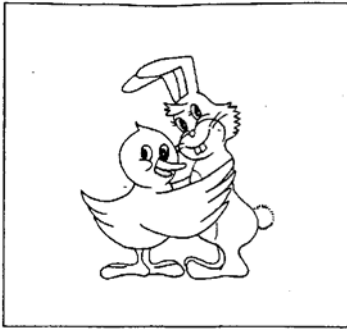
실험에서는 총 20개의 실험 문장이 사용되었는데 문장의 유형은 4개이며 각 유형에 5개의 비슷한 실험 문장이 사용되었다. 실험 문장은 관계절 안에 어떤 논항들이 포함되었느냐와 그 중 어떤 논항이 관계화되었느냐에 따라 2개의 세트로 나뉘어진다. (8)의 관계절은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9)의 관계절은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 (8)의 관계절은 주어 공백을 포함한 관계절과 직접목적어 공백을 포함한 관계절 사이의 습득상의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9)의 관계절은 주어 공백을 포함하는 관계절과 간접목적어 공백을 포함하는 관계절 사이의 습득상의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 (8) a.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a duck [that \_\_\_\_\_ hugs a rabbit]
- b.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a dog [that a cat hits \_\_\_\_\_]
- (9) a.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a pig [that \_\_\_\_\_ talks to a cat]
- b.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고 간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a cow [that a bear gives a kiss to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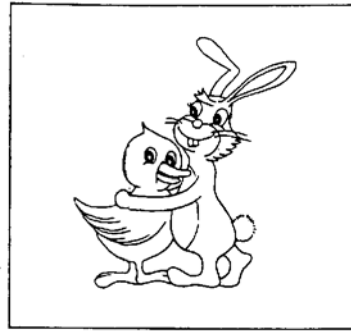
## 2.2. 실험 절차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피실험자가 본 실험에 익숙할 수 있도록 간단한 연습을 실시한 다음에 실험 문장과 두개의 그림을 피실험자에게 주었다. 피실험자는 실험자가 들려주는 실험 문장을 하나씩 듣고 두개의 그림을 보면서 관계절이 묘사하고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동물을 주어진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험 문장은 순서없이 주어졌다. (10)과 (11)은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 문장과 그림 중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 (10)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a duck [that \_\_\_\_\_ hugs a rab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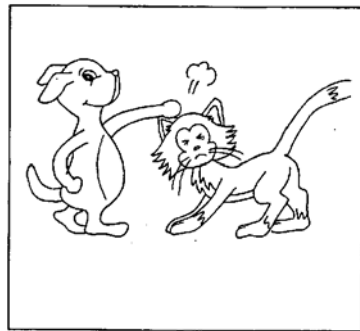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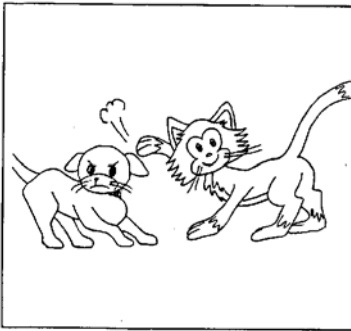


(a)



(b)

- (11)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a dog [that a cat hits \_\_\_\_\_]



만약, 피실험자가 *a duck that hugs a rabbit*(=(10))이라는 관계절 구문을 듣고 주어진 두 개의 그림에서 왼쪽 그림(=(10a))에 있는 오리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 관계절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 된다. 관계절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관계절 안의 공백을 머리어의 지시물로 이해하고 (여기서는 '오리') 또 관계절 안에서 올바른 문법적인 역할을 갖는 것으로 (여기서는 주어) 해석한다는 것이다. 만약, 피실험자가 위의 관계절을

듣고 오른쪽 그림(=10b)의 오리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관계절 안의 공백을 머리어의 지시물로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나 그 문법적인 역할을 주어가 아닌 직접목적어로 잘 못 해석한 것이 되어 주어진 관계절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왼쪽 그림의 토끼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관계절 안의 공백의 지시물을 토끼로 잘 못 이해한 것이 되며 문법적인 역할도 직접목적어로 잘 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토끼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공백의 문법적인 역할은 주어로 잘 해석한 것이나 공백의 지시물은 잘 못 이해한 것이 된다.

### 3. 결과

아래의 표 1과 표 2는 피실험자들에게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는 관계절 구문에서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은 쉽게 이해되는데 반해 직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6.4% vs. 8.2%). 표 3과 표 4도 역시 피실험자들에게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는 관계절 구문에서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이 간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보다 훨씬 쉽게 이해됨을 보여 주고 있다 (90.1% vs. 3.6%). 다시 말해 주어 공백이 직접목적어 공백이나 간접 목적어 공백보다 훨씬 쉽게 이해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에 대한 반응

바른 지시물	바른 지시물	틀린 지시물	틀린 지시물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95/110 (86.4%)	8/110 (7.3%)	3/110 (2.7%)	4/110 (3.6%)

표 2: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에 대한 반응

바른 지시물	바른 지시물	틀린 지시물	틀린 지시물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9/110 (8.2%)	93/110 (84.5%)	1/110 (0.9%)	7/110 (6.4%)

표 3: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에 대한 반응

바른 지시물	바른 지시물	틀린 지시물	틀린 지시물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100/110(90.1%)	3/110 (2.7%)	4/110 (3.6%)	3/110 (2.7%)

표 4: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고 간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에 대한 반응

바른 지시물	바른 지시물	틀린 지시물	틀린 지시물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바른 문법역할	틀린 문법역할
4/110 (3.6%)	100/110(90.1%)	2/110 (1.8%)	4/110 (3.6%)

또한 표 2와 표 4는 직접목적어 공백과 간접목적어 공백이 머리어의 올바른 지시물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문법 역할은 주어를 갖는 것으로 틀리게 해석되고 있음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각각 84.5%와 90.9%). 다시 말해 (12)와 (13)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실험자에게 직접목적어 공백을 포함하는 관계절과 간접목적어 공백을 포함하는 관계절은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처럼 해석이 되고 있다.

- (12) a. 주어진 실험 문장  
직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a dog [that a cat hits \_\_\_\_]
- b. 실제 해석된 모습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a dog [that \_\_\_\_ hits a cat]
- (13) a. 주어진 실험 문장  
간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a cow [that a bear gives a kiss to \_\_\_\_]
- b. 실제 해석된 모습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a dog [that \_\_\_\_ gives a kiss to a bear]



그리고 실험에 이용된 영어 구문들에서 문장의 끝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문(=(8a))과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문(=(9a))의 두 가지가 있는데, 표 1과 표 3은 이 구문들에서 문장의 끝에 나오는 명사가 마치 머리어인 것처럼 해석이 되어 피실험자가 틀린 지시물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14/440 (3.2%)).<sup>2)</sup> (14)는 실험문장에서 명사가 문장의 끝에 나오는 경우 피실험자들에 의해 실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4) a. 주어진 실험 문장

명사가 문장의 제일 뒤에 나오는 관계절

*head relative clause*

a duck [that \_\_\_\_ hugs a rabbit] (=(8a))

b. 실제 해석된 모습 (머리어 에러)

실험 문장에서 제일 뒤에 나온 명사가 머리어로 바뀐 관계절

*head relative clause*

a rabbit [that \_\_\_\_ hugs a duck]

#### 4. 결과 논의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의 성인이 어떻게 영어의 관계절을 습득하는지를 알아보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성인에게 주어 공백을 갖는 영어의 관계절이 직접목적어 공백이나 간접목적어의 공백을 갖는 영어의 관계절에 비해 쉽게 습득되는 것을 보았다. 이 결과는 (12)와 (13)에서 본 잘못 해석된 문장을 분석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즉 해석이 어려운 직접목적어 공백과 간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은 해석이 쉬운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로 바뀌어 해석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결과는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아이들의 영어 관계절 습득에서 보이

---

2) 소위 ‘머리어 에러(head errors)’라는 것인데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의 관계절을 외국어로서 배울 때 머리어가 문장에 끝에 위치하는 한국어 관계절의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영어의 관계절 구문(머리어가 문장의 앞에 위치)을 이해하는데 적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는 결과와 일치하는데, 예를 들면 O'Grady(1997, p. 179)는 약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미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Tavakolian(1978)의 이해도 측정 실험자료를 재분석하여 표 5에서처럼 주어 공백이 직접목적어 공백보다 선호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관계절에서 주어 공백과 직접목적어 공백의 올바른 문법 역할의 해석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직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91%	45%

이 결과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영어 관계절 습득의 설명에 이용되는 O'Grady의 구조적 거리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5)에서 볼 수 있듯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의 공백은 공백과 머리어 사이에 있는 최대 투사범주로 표시된 구조적 거리가 각각 2와 3으로 주어 공백과 머리어 사이의 구조적 거리(즉 1)보다 더 멀어 공백과 머리어의 연결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a.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조적 거리 = 1)  
       a duck [S that \_\_\_\_ hugs a rabbit]  
       b. 직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조적 거리 = 2)  
       a dog [S that a cat [VP hits \_\_\_\_]]  
       c. 간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조적 거리 = 3)  
       a cow [S that a bear [VP gives a kiss [PP to \_\_\_\_]]]

앞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한국인은 머리어가 문장의 앞에 나오는 영어의 관계절 구조를 해석할 때 머리어가 문장의 뒤에 나오는 한국어의 관계절 구조로 바꾸어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3.2%), 이 결과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45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O'Grady(2000, p. 8)의 한국어 관계절의 이해도 측정 실험에서의 결과와 비교하면, 그 빈도수가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결과로 보고된 평균 21.1%의 머리어 에러에 비교하면 약 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표 6: 다른 반응들과 비교한 머리어 에러(head errors)의 비율

	바른 지시물 바른 문법역할	바른 지시물 틀린 문법역할	틀린 지시물 (head errors)
주어공백 관계절	194 (73.2%)	26 (9.8%)	34 (12.8%)
목적어공백 관계절	60 (22.7%)	115 (43.4%)	78 (29.4%)

(16)은 미국인들이 한국어의 관계절을 미국의 관계절 구조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6) a. 주어진 실험 문장

명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관계절

*relative clause head*

[학생이 \_\_\_ 본] 교수

‘the professor who the student sees’

b. 실제 해석된 모습(머리어 에러)

실험 문장에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 명사가 머리어로 바뀐  
관계절

*head relative clause*

학생 [ \_\_\_ 본 교수]

‘the student who sees the professor’

한국인에 의한 영어 관계절 습득에 있어서의 머리어 에러 비율이 미국인에 의한 한국어 관계절 습득에 있어서의 머리어 에러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영어의 관계절 구문이 한국어의 관계절 구문에 비해 쉽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은 영어의 관계절에서 머리어 에러를 적게 하고, 반면에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은 한국어의 관계절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의 관계절 구조로 바꾸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O’Grady(2000)는 관계절이 뒤에 나오고 머리어가 앞에 나오는 영어 관계절 구문은 화자가 먼저 머리어로 가능한 여러 지시물을 언급하고 다음에 머리어의 뒤에 위치하는 관계절로 그 중 특정한 지시물을 나타내게 되어 언어처리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반해 한국어 관계절 구문은 특

정한 지시물을 언급하는 관계절이 먼저 나오고 여러 지시물을 나타내는 머리어가 나중에 나옴으로서 언어처리의 측면에서 덜 자연스럽고 따라서 문장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아동들에 의한 한국어 관계절 습득에서 보이는 (17)과 같은 내포머리어 관계절 구문(head-internal relative clauses)<sup>3)</sup>의 발화는 한국어의 관계절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아동들은 한국어의 관계절을 영어의 관계절처럼 머리어를 문장의 앞으로 좀 더 이동시키어 쉽게 발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7) 한국어의 내포머리어 관계절 구문

*head*

[토끼가 오리를 안아주는] 것

'a rabbit that hugs a duck'

실제 4세에서 7세까지의 38명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출 실험에서 (17)과 같은 내포머리어 관계절 구문은 211개가 발화되어 보통의 관계절 구문을 포함한 총 관계절 구문에서 35%를 차지했다(Cho, 1999, p. 103).

## 5. 결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성인이 어떻게 영어의 관계절을 습득하는가를 하나의 산출실험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는 한국인에게 주어 공백을 갖는 영어 관계절이 직접목적어 공백이나 간접목적어 공백을 갖는 영어 관계절에 비해 쉽게 습득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주어 공백을 갖는 영어 관계절이 다른 공백을 갖는 관계절에 비해 습득상 선호되는 것은 O'Grady(1997)의 구조적 거리 원리로 설명할 수 있었다. 모국어로서의 영어 관계절 습득에 작용하는 구조적 거리 원리가 한국인에 의한 외국어로서의 영어 관계절 습득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은 모국어 습득에 작용하는 언어습득장치가 외국어 습득에서도 역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내포머리어 관계절 구문은 한국어와 같이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나오는 언어들에서만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Govert, 1976, 1977; Keenan 1978).

## 참고문헌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rain, S., & Thornton, R. (1998). *Investigations in Universal Grammar: A guide to experiments on the acquisition*, 13, 431-69.
- Doughty, C. (1991). Second language instruction does make a differenc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431-69.
- Eckman, F., Bell, L., & Nelson, D. (1988). On the generalization of relative clause instruction i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9, 1-13.
- Flynn, S. (1996). A Parameter-setting model of L2 acquisition. In W. Ritchie and T.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21-58). San Diego: Academic Press.
- Gass, S. (1979). Language transfer and universal grammatical relations. *Language Learning*, 29, 327-44.
- Gass, S. (1980). An investigation of syntactic transfer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ers. In R. Scarcella & S. Krashen (Eds.),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32-41). Rowley, MA: Newbury House.
- Gass, S. (1981). From theory to practice. In M. Hines & W. Rutherford (Eds.), *On TESOL '81* (pp. 129-39). Washington, DC: TESOL.
- Govert, L. (1976). *A grammar of Diequeno nominal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Govert, L. (1977). Headless relatives in the Southwest: Are they related? *Proceedings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3, 270-278.
- Keenan, E. (1978). Relative clause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published manuscript.
- Limber, J. (1973). The genesis of complex sentences. In T. E. Moore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pp. 169-85). New York: Academic Press.
- Menyuk, P. (1977). *Language and maturation*. Cambridge: MIT Press.
- Miller, J. (1981).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O'Grady, W. (1997). *Syntact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Grady, W., Yamishita Y., Lee, M., Choo, M., & Cho. S. (2000). Computational factors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of Mind*. Keio University. 40-46.
- Cho. Sookeun. (1999).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Experimental studies o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Tavakolian, S. L. (1981). The conjoined-clause analysis of relative clause. In S. L. Tavakolian (E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y* (pp. 167-87). Cambridge: MIT Press.
- Thomas, M. (1991). *Universal Grammar and knowledge of reflexives in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White, L., Travis, L., & MacLachlan, A. (1992). The acquisition of *wh*-question formation by Malagasy learners of English: Evidence for Universal Grammar.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7, 341-68.
- Wolfe-Quintero, K. (1992). Learnability and the acquisition of extraction in relative clauses and *wh* question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4, 39-70.

조수근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전화: (02) 940-5587

이 메일: sookeunc@hanmail.net

Received in July, 2002

Accepted in August, 2002